

통권 제15호

2022년 6월

INSIGHT

동남권지역혁신 인사이트

In This Issue

OPINION

국제개발협력과 지역연구 _ 조흥국

미래의 설계도, 청년과 지역문화 _ 박소윤

ISSUE DIAGNOSIS

동남권 지역의 국제개발협력을 위한 국제개발협력센터 활용 _ 주민서

COLUMN

작곡가 이상근의 탄신 100주년에 _ 오광수

HOT PAPER

Stakeholder Capitalism _ 성현정

NEWS

동남권지역혁신 소식

윤리경영전략센터 소식



※ 본 뉴스레터 관련 콘텐츠 문의는 부산대학교 윤리경영전략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부산대학교 윤리경영전략센터 051-510-1084
동남권지역혁신 INSIGHT 편집위원회 sbe-center@pusan.ac.kr

본 뉴스레터는 부산대 국립대학육성사업단의 지원으로 지역사회 혁신을 위한 대학, 기업, 지자체, 공공기관의 네트워킹 사업의 일환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부산대학교 윤리경영전략센터·(사)동남권발전협의회

Contents

03 OPINION

국제개발협력과 지역연구 _ 조흥국
미래의 설계도, 청년과 지역문화 _ 박소윤

05 ISSUE DIAGNOSIS

동남권 지역의 국제개발협력을 위한 국제개발협력센터 활용 _ 주민서

10 COLUMN

작곡가 이상근의 탄신 100주년에 _ 오광수

13 HOT PAPER

Stakeholder Capitalism _ 성현정

16 NEWS

동남권지역혁신 소식
윤리경영전략센터 소식



OPINION

국제개발협력과 지역연구



조 흥 국
부산대학교 국제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제프리 삭스(Jeffrey D. Sachs)는 개발협력에 있어서 수원국에 대한 이해를 강조한다. 그가 쓴 『빈곤의 종말(The end of poverty)』에 따르면, 개발경제학의 기존의 접근 방법에서는 수원국에 대한 연구와 이해를 중시하지 않았다. 그는 특히 최빈국들에서 천년개발 목표(MDGs)의 목표 달성이 지체되고 있는 주원인 중 하나가 수원국에 대한 이해의 결여라고 본다.

삭스는 대상 국가의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론과 실천, 즉 일반원리와 특수한 정황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그는 수원국에 대한 현지인 시각에 주목하며 이를 위해 특히 빈곤함정, 경제정책의 틀, 재정의 틀 및 재정함정, 자연지리, 통치구조 패턴 및 실패, 문화장벽, 지정학 등의 7개 범주의 체크리스트를 제시한다. 즉 원조대상국을 연구할 때, 상호 연계되어 있는 복잡한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시스템과 지리적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나라의 정치·경제, 사회·문화, 역사·지리 등의 복합적 구조와 그 전체적 맥락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수원국의 빈곤 문제의 근본적 원인이 파악되고 그 문제 해결의 방안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될 수 있다는 말이다.

원조 대상국에 대한 이러한 접근방법은 지역연구(area studies)가 그동안 추구해 온 한 지역 내지는 국가에 대한 종합적 접근과 유사하다. 그것은 한 지역의 종합적 이해를 위해 역사학, 언어학,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 심리학, 인류학, 지리학 등 인문과학 및 사회과학뿐만 아니라, 생물학, 지질학, 환경과학 등 자연과학도 동원할 수 있다는 혹은 동원해야 한다는 이른바 학제간적(interdisciplinary) 연구 방법을 일컫는다.

1970년대까지 ODA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대부분의

공여국은 저개발국가의 지역적 특성에 대한 이해를 중시하지 않았다. 즉 수원국의 필요를 올바로 파악하지 못한 채 일방적 원조사업을 실시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미 1970년대와 1980년대 ODA의 효과성을 위해 지역연구가 필요하다는 학술적 논의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국제개발협력 프로젝트의 수행에 있어서 지역연구의 중요성에 대한 학술적 논의는 2000년대 이후 보다 본격적으로 나타났다. 그리하여 세계은행이 자금을 지원한 남부 아프리카의 레소토(Lesotho)에서의 대규모 수자원 공사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개발프로젝트 수행 시 프로젝트가 추진되는 현지 사회의 문화와 사회적 구조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는 것이 지적되었다.

ODA의 효과성의 주요 기초 중 하나는 수원국에 대한 이해이다. 그러나 인류학적 시각과 방법론으로 국제개발협력을 연구하는 이태주 교수의 지적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ODA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수원국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가 결여되어 있다. 현재 한국의 개발원조는 유상과 무상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그 중에서 무상원조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경우 수원국 사회에 대한 정확하고 체계적인 이해가 요구된다.

개발경제학자인 윌리엄 이스털리(William R. Easterly)는 그의 저서 『세계의 절반 구하기 - 왜 서구의 원조와 군사 개입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가』(The White Man's Burden: Why the West's Efforts to Aid the Rest Have Done So Much Ill and So Little Good)에서 수원국 사회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중시하는 개발원조는 이른바 '탐색가'에 의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된다고 말한다. 그는 대외원조에서 "밑바닥 계층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계획가'들은

“기대감을 불러일으키지만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책임을 지지 않는” 반면에 “밑바닥의 현실을 발견해” 내는 ‘탐색가’는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수용한다”고 본다.

이스탈리는 또 “관료적 계획가들은 빈민들에게서 피드백을 거의 혹은 전혀 받지 않는” 것에 비해, ‘탐색가’들은 빈민들과의 대화, 현지 조사와 같은 피드백 시스템을 고안하고, 지역 상황에서 실제 운용할 수 있는 것들을 실험함으로써 현장에서 일을 더 잘 해낼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그는 “원조의 문제는 가난한 사람들이 대부분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의 원조와 기타 개발 노력들은 부유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세상의 다락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비판한다. 그는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원조 기관의 직원들이 “효과적인 탐색가가 되도록 충분히 전문화 되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 원조 전문가들이 “특정 지역에서 특정 분야에 대해 학습하는 데 시간을” 들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seathai@pusan.ac.kr>



OPINION

미래의 설계도, 청년과 지역문화



박 소 윤
(재)부산문화재단 기획경영실장
국제학 박사

같은 지역어를 쓰고, 같은 역사적 배경, 민속문화, 관습, 터부처럼 같은 문화적 상상을 하는 심상적 지리를 지역이라고 한다. 시대의 편의대로 경상지역, 부산 지역 등으로 나누지만 지역이라는 자체는 정치권력 주체나 시대의 필요와 관점에 따라 구획되므로 지역은 국가 기획에 의해 창조된 개념이다. 지방이라고 쓸 때는 특별히 중앙과 대치된 위치에 놓임으로써 한 국가 내 지리적 계급 층위를 담게 된다. 그래서 지방분권, 지방소멸이라고 쓸 때, 이는 중앙과 명확한 이항대립의 위치에 놓인다. 지방은 정치·경제적 종속뿐 아니라 역사·문화적으로도 비주류 역사와 문화가 되고 만다. 지방은 중앙을 향해 있되, 닿을 수 없는 변방에 자리 하게 되는 것이다. 지역문화는 그 나름의 설화, 민담,

민요, 유·무형의 무수한 문화로 전승되기도 하고 새로이 생성되기도 하지만, 국가 중심 문화사 기술에서는 제대로 언급되지 못한 채 소멸되기 십상이다. 사투리라고 통칭되는 지역어의 소멸이 대표적이다. 국가 중심 교육과 방송매체는 지역을 문화적으로 소외시키고 공소하게 만들어 지역에 살면서도 지역어를 쓰지 않으려고 애쓰게 하고 지역의 문화는 별 게 없다고 인식하게 만드는 것이다.

지역문화의 현장을 살펴보자. 수도권과 비수도권 문화예술 활동 건수를 들여다보면 서울, 경기, 인천 3개 지역인 수도권의 문화예술 활동이 나머지 14개 지역인 비수도권 문화예술 활동 건수보다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7] 수도권과 비수도권 문화예술 활동 건수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수도권	25,097	17,364	17,278	18,832	20,260
비수도권	11,706	15,739	17,038	18,395	19,651
계	36,803	33,103	34,316	37,227	39,911

(출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예연감』 2014-2018년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

이와 같은 문화예술 활동 건수가 보여주는 것은 다음과 같은 사실이다. 첫 번째, 문화예술인들이 수도권에 모여있다는 점, 두 번째, 극장, 전시시설과 같은 문화적 인프라가 수도권에 더 많이 세워졌다는 점, 세 번째, 문화예술창작지원금이 수도권에 더 많이 배정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지역으로서는 쉽게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지역의 지속가능발전 뿐 아니라 생존과 닿아있기 때문이다. 문화예술 활동은 지역의 매력, 어메니티를 높이는 핵심 요인이다. 찰스 랜드리, 리처드 플로리다, 피터 홀, 랄프 에베르트와 같은 학자들이 발전시킨 창의도시 담론에서 기술력과 인제는 문화

이라 해서 신문에 나오고 부산시 성과가 자랑 되지만, 등 떠밀고 지원해 줘서 창업 성사시킨 청년도 떠난단 말이지.”⁷⁾라는 김소영의 말처럼 일자리나 창업 지원만이 청년들의 정주를 위한 답은 아닌 셈이다. 그렇다면 청년들은 어떤 삶을 원하는가. 좋아하는 일, 하고 싶어 하는 일을 하며 행복감을 느끼면서 살기 원한다. 그들 에겐 일상 속에서 즐길 수 있는 문화적인 라이프스타일이 중요하다. “저는 일상 자체를 문화와 함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출퇴근길엔 늘 제가 좋아하는 가수들의 노래를 듣고, 마음에 와닿는 가사가 있으면 기억해 뒀다가 따로 메모를 해 둡니다. (……) 친구들과 연극, 뮤지컬을 보러 가기도 하지만 그냥 일상을 보내 듯 노래나 책을 읽는 게 저의 문화적인 라이프스타일과 더 가깝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⁸⁾라는 박혜원의 말처럼 청년들은 특별하게 시간을 내서 특정한 장소에 가서 즐기고 배우는 게 아니라 늘 가까운 일상에서 예술을 느끼게 하는⁹⁾ 지역을 선호한다. 즉, 사회는 예술 밖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술 속에 침투하고, 예술과 하나가 되어야¹⁰⁾하기에 예술과 함께 하는 지역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향하는 것은 일자리뿐 아니라 인간적인 존엄을 느끼며 살 수 있는 문화의 기회가 풍요롭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지역문화는 미래와 생존을 위해서도 가꾸어야 할 지역 정주요건이 된다. 학교현장에서는 부산의 무형문화재를 전승하는 어린이 무형문화재교실을 열고 사상시의버스터미널, 사상역, 도시철도, 경전철의 이음새에 자리한 사상인디스테이션에서는 인디뮤지션들의 공연이 이루어진다.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점에서는 청년예술가들의 아트페어를 운영하고, 청년들의 다양한 취향 소모임을 지원하기도 한다. 또한 지역의 빈집을 문화예술교육공간으로 다독인다.¹¹⁾ 다시 처음으로 되돌아가 보자. 국가주의 시각으로 지역을 바라보지 말 것. 그것은 지역문화를 온전히 살피기에는 고르지 않은 렌즈이다. 중앙 중심의 시각은 지역의 주체적 시각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지역문화는 지역민의 삶의 흔적이라 보존·전승해야 하는 문화적 종(種)일 뿐 아니라 지역의 지속가능발전과 생존전략 가치이다. 지역의 미래를 열어가는 청년들의 정주 요인이기 때문이다. 청년들의 발길이 닿는 가까이에서 지역문화 역시 숨 쉴 수 있다. 지역문화의 걸음걸음은 지역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미래 설계도인 것이다.

<toktoksy@naver.com >

참고문헌

- 7) 부산문화재단, 「청년정책의 재구성」, 부산청년문화백서 『청문청답』, 인디페이퍼, 2021, 232쪽.
8) 부산문화재단, 「부산에 삽니다」, 위의 책, 332쪽.
9) 부산문화재단, 「로컬크리에이터와 도시의 미래」, 앞의 책, 292쪽.
10) 김동일, 『예술을 유혹하는 사회학』, 갈무리, 2010, 7쪽.
11) 부산문화재단의 여러 문화사업들이다.

- 김동일, 『예술을 유혹하는 사회학』, 갈무리, 2010.
김종욱 외, 「부산청년종합실태조사」, 부산발전연구원, 2018.
리처드 플로리다, 박기복·신지희, 『후즈유어시티』, 브렌즈, 2010.
리처드 플로리다, 이원호·이종호·서민철, 『도시와 창조계급』, 푸른길, 2008.
마스다 히로야, 김정환 역, 『지방소멸』, 와이즈베리, 2014.
박소윤, 「지속가능발전과 도시문화정책: 부산 문화현장을 통해 본 문화다양성의 지역회복 함의」, 부산대학교 박사논문, 2022.
부산문화재단, 『부산청년문화백서 청문청답』, 인디페이퍼, 2021.
이상호, 「한국의 지방 소멸」, 『고용동향 브리프』, 2018.

예술이 융성하고 문화적 포용성을 가진 도시에 모여 든다고 보았다. 특히, 리처드 플로리다는 보헤미안 지수, 즉 예술가들의 수를 이러한 창의도시의 지표로 삼았다. 리처드 플로리다는 보헤미안의 비율이 높은 대도시 지역은 창조성과 예술성을 지원하고, 공연·전시와 같은 어메니티들을 존중하고 수용하는 도시들로서 보헤미안 지수와 하이테크 산업의 집중과는 강한 상관관계가 존재한다고²⁾보았다. 문화예술인들이 모여들고 그들의 활동이 활발한 지역은 기술력을 가진 창의인재들의 유입을 촉진하게 된다. 지역발전 미래를 추동할 창의인재들은 곧 청년들이다. 리처드 플로리다는 지역경제의 발전에 있어 게이&보헤미안 지수와 경험에 대한 개방성이 가장 강력한 결과를 보여줬다고 한다.³⁾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지역은 어떠한가. 지역의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이주함으로써 지역의 경제는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 마스다 히로야는 『지방소멸』에서 신자유주의 경제구조에서 지방일자리가 사라지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인구가 도시로 모여들고 있으며 이것은 지방의 경제와 고용의 기초 자체가 붕괴되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고 한다. 즉, 지방이 소멸과정에 들어섰음을 암시하는 것이다.⁴⁾ 2018년 7월 한국고용정보원의 『고용동향 브리프』이상호의 연구 ‘한국의 지방소멸 2018: 2013-2018년까지의 추이와 비수도권 인구이동을 중심으로’에 따르면, 인구 절벽으로 비대칭성이 심각 한데도 비수도권의 인구 비중은 지난 20년 이상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1993년 55.7%에서 2017년 50.6%까지 하락하였으며, 특히 이삼십대 비수도권의 청년 인구 비중은 2004년 절반 이하로 떨어졌는데 이는 2017년 기준 수도권 대비 47.0%라고 한다.⁵⁾ 우리나라의 경우도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빨려들기에 따라 지역은 소멸의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다. 부산연구원 에서 2018년 실시한 「부산청년종합실태조사」에서도

부산의 청년인구 비율은 21%로 전국 평균에 비해 0.9%p 낮게 조사되었다. 2017년 기준 부산지역 청년 유출자는 전체 유출자의 약 35.7%이며, 대구, 광주, 울산 등은 전체 순유출에서 청년이 차지하는 비중이 50%가 넘는 것으로 조사되어⁶⁾ 지역의 청년층 유출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들이 왜 지역을 떠나는가는 지자체의 주요 정책 현안인데 그 이유는 지역이 살아남으려면 생산주체인 청년들이 정주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어떻게 해야 청년들이 지역에 정주하는가는 기성세대들의 집요한 관심사이고 일자리라는 나름의 합리적인 결론을 내리기도 했다. 하지만 일과 취향을 동시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금의 청년들에게 일자리는 단순히 경제적인 이유를 떠나 자기 존재 구현의 공간이기에 일자리만으로 답을 얻어내긴 어렵다. 문화적으로 숨 쉴 틈 없이 생산공장만 즐비한 공간은 늘 인력을 구하지 못해 허덕이지만 청년 인재들의 시선을 끌진 못한다. 2021년 부산문화재단에서는 지역의 청년 백여 명과 경제와 정체성(청년 문화의 좌표/ 흔들리는 예술), 양식의 다양성(일상과 취향/ N잡러, 문화예술로 먹고살기), 젠더와 청년(결혼에 관한 새로운 합의/젠더 갈등’이라는 허상), 호모소셜리쿠스(사회적청년: 요구’받는’존재에서 요구’하는’존재로/ 청년정책의 재구성), 로컬리티, 청년(지역담론 너머, 새로운 교차로/ 로컬크리에이터와 도시의 미래)이라는 10개 주제별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부산청년문화백서 『청문청답』을 발간하였다. 라운드테이블 결과 우리 지역은 청년들이 원하는 삶의 방식이나 방향성이 아닌 기성의 제도가 원하는 삶의 방식을 유도하는 데서 엇박자가 나고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 “제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청년창업 프로그램에 참여했을 때였어요. 처음에 모였던 30명의 창업자 중 2년이 지나니 6명만 남았습니다. 떠난 사람 중 절반은 폐업하거나 부산에 없는 거예요. 청년 창업

- 1) 박소윤, 「지속가능발전과 도시문화정책: 부산 문화현장을 통해 본 문화다양성의 지역회복 함의」, 부산대학교 박사논문, 2022, 111쪽.
2) 리처드 플로리다, 이원호·이종호·서민철, 『도시와 창조계급』, 푸른길, 2008, 175쪽.
3) 리처드 플로리다, 박기복·신지희, 『후즈유어시티』, 브렌즈, 2010, 225-226쪽.
4) 마스다 히로야, 김정환 역, 『지방소멸』, 와이즈베리, 2014, p. 27.
5) 이상호, 「한국의 지방 소멸」, 『고용동향 브리프』, 2018, p. 2-21 참고.; 박소윤, 「지속가능발전과 도시문화정책: 부산 문화현장을 통해 본 문화다양성의 지역회복 함의」, 부산대학교 박사논문, 2022, 109쪽 재인용.
6) 김종욱 외, 「부산청년종합실태조사」, 부산발전연구원, 2018, pp. 6-9.; 박소윤, 「지속가능발전과 도시문화정책: 부산 문화현장을 통해 본 문화다양성의 지역회복 함의」, 부산대학교 박사논문, 2022, 109쪽 재인용.

ISSUE DIAGNOSIS

동남권 지역의 국제개발협력을 위한 국제개발협력센터 활용



주 민 서
울산국제개발협력센터장

“국제개발협력 분야에 경험을 쌓고 네트워크를 만들고 싶어도, 어떻게 시작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인터넷을 찾아봐도 관련 행사들이 전부 서울에서만 열려서 그냥 포기했다가, 울산에도 센터가 생긴다고 해서 한번 찾아와 보았습니다.”

지난 해 9월 울산국제개발협력센터(이하 울산센터)에 부임을 한 이후, 울산지역 학생 및 기업, 이해당사자들로부터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이다. 2005년부터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종사하며 서울 혹은 해외에서만 근무를 하다가, 처음으로 국내 지방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 울산에서 근무를 하며,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의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여러 면에서 체감하고 있다.

‘개발도상국의 빈곤퇴치와 경제·사회 개발을 지원하는 국제사회의 광범위한 협력’이라는 의미를 가진 국제개발협력은 사실 우리 국민 모두가 반드시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사회 이슈는 아닐지도 모른다. 전 세계 빈곤문제 해결보다는 우리 내부의 여러 가지 사회문제들이 더 가깝고 시급한 것으로 느껴진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개발협력은 한국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야 하는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지난 3년간 우리가 겪어온 코로나19 팬데믹, 국경을 초월한 기후변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으로 인한 경제 위기 등을 보면, 글로벌 이슈에서 한국이 자유로울 수 없으며, 한국 국내에서도 특히 대외수출 의존도가 높은 동남권 지역은, 성장과 발전에 국제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2000년 9월, 189개 UN회원국의 만장일치로 ‘새천년 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 MDGs)’가 채택되어, 국제사회는 2015년까지 해당 목표달성을 위해 노력했다. 또한, 2015년에는 MDGs에서 달성하기 못한 목표에 대한 반성과 국제사회의 시급한 문제로 부상한 기후변화, 환경, 인권, 민주주의 등의 주제를 포함하여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를 설정하고 2030년까지 모든 국가, 국제기구, 민간, 학계 등 전 세계의 다양한 주체들이 목표달성을 위해 함께 뛰는 중이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변화에 발맞추어, 우리 정부 역시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이하 ODA)규모를 지속적으로 증가시키고 있다. 한국은 미국, 일본, 영국, 독일 등 30개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는 OECD산하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에 가입하여 선진 공여국의 일원이 된 2010년 이후, 당시 약 1조 3000억원 규모였던 ODA를 2022년 기준 4조 425억원까지 증가시켰다.

또한, 무상원조를 총괄하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유상원조를 총괄하는 한국수출입은행이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전담하여 수행하고 있지만, 공공기관, 지자체, 기업, 대학, 연구소 등 다양한 기관들도 ODA를 활용한 국제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필자는 지자체와 지역 내 기업 및 대학 등에 주목하고자 한다.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지자체는 중요한 액터로 인식되고 있다. 2008년 가나 아크라, 2015년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 국제회의에서 개발도상국의 지방정부 발전을 위한 공여국 지방정부의 역할과 중요성이 강조 되어왔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각 지자체 및 지방에서 국제협력사업이 일부 추진되고 있으나, 그 규모가 작고 그 사업을 수행할 지역 내 인재들이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OECD는 2005년 발행한 ‘Better aid’라는 보고서에서 효과적인 개발협력을 위해 숙련된 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지만, 교육과 인재의 양극화가 심각해지는 지방의 현 상황에서 지역 내 전문인력을 찾거나, 혹은 해당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ODA에 대한 지자체와 지방의 역할이 국내에서도 점차 강조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지역 내 인재들이 지역이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것 뿐만 아니라 국제개발 분야로도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국제개발 전문가들이 국제개발 분야 뿐만 아니라, 기업의 ESG전문가, 해외영업, 사회적 기업 창업 등 다양한 커리어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보면, 지역 인재의 국제개발분야 진출은 지역 내 직업다양성을 창출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울산센터는 KOICA의 ‘거점지역 국제개발협력센터 설립사업’의 일환으로 설립되었다. 해당 사업은 ODA 사업에 참여하는 대부분의 파트너들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기획되었다. 비수도권 지역 파트너들의 국제개발협력 및 ODA사업 참여 활성화, 유관 네트워크 구축 및 ODA사업 저변 확대를 위해 2015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다. 제주, 대구, 전북, 강원, 인천 센터가 2015년에 설립되었고, 한동안 신규센터가 설립되지 않다가 지난해 충북, 울산, 광주 센터가 설립되어, 전국에 총 8개의 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센터들의 주요 업무는 지자체와 국제개발협력 및 ODA사업에 관심이 있는 지역 내 이해당사자들에게 자문 및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다.

울산센터의 경우 울산지역 이해당사자들이 국제개발협력 분야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의 국제화를 지원하기 위해 혁신적 파트너십과 인재양성, 인식증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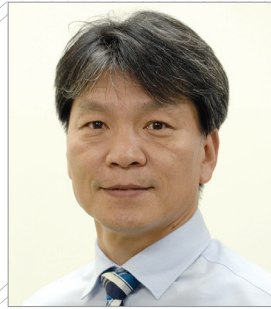
사업을 통해 ‘울산형 국제개발협력 모델’을 만드는 데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금년에는 울산광역시와 함께 울산지역 청년들이 국제기구에서 인턴으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유플라이(U FLY)사업을 실시하여 4명의 울산 청년들이 자카르타, 방콕, 서울 등에서 업무를 시작했다. 하반기에는 울산지역 지역 기업들이 국제개발 조달 등에서 사업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여러 설명회들을 기획하고 있다.

울산센터는 부산국제교류재단, KOICA부산사무소, 경남도청 및 지역 내 여러 대학들과 긴밀하게 협업하여, 동남권 지역에 있는 기업, 대학 및 지자체들이 지역 특화 국제협력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울산지역 뿐만 아니라 동남권에 있는 여러 이해당사자들이 울산센터 뿐만 아니라, 국제개발협력 분야를 지원하는 기관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양질의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수행하고, 지역의 인재들이 글로벌 인재가 되기 위해 수도권 뿐만 아니라 동남권 지역을 선택지로 가질 수 있는 발전을 함께 이루기를 바란다.

<minseoj@ulsan.ac.kr>



작곡가 이상근의 탄신 100주년에



오광수

국제신문 편집국 부국장
부산대 대학원 예술·문화와영상매체협동과정 박사과정

필자가 국제신문 문화부에서 초보기자로 있던 무렵 ‘그’를 처음 만났다. 부장의 심부름이 인연을 맺어줬다. 심부름 내용은 ‘그’가 작곡한 국제신문 사가(社歌)의 악보를 받아오라는 것이었다. ‘그’는 신문사를 찾아 전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직접 사가 부르기를 가르쳤다. 노래가 부르기 쉽지 않았던 까닭. 부끄럽게도 필자는 한참 뒤에야 ‘그’가 유명한 작곡가 이상근(1922~2000)임을 알게 됐다(당시 필자의 담당은 음악이 아닌, 학술과 문화재였다!). ‘영남 음악계의 파수꾼’ 이상근을 몰라봤다니….

이상근은 20세기 한국 음악계를 대표하는 인물이다. 그의 작품은 가곡과 합창곡, 실내악곡, 관현악곡, 오페라 등으로 다양하다. 이상근은 다양한 장르에서 빼어난 작품을 많이 남긴 작곡가이자 자애로운 교육자였다. 그는 부산 음악의 ‘여명기’에 작곡가로 활발한 대의 활동을 하면서도 대학교수로서 후학양성에 힘을 쏟았다. 이상근은 지역에서 나고 자라고, 일터로 삼았다. 그는 한국전쟁 무렵이던 1950년대초부터 작고할 때까지 부산에서 문화예술의 성장과 함께했다.

이상근은 1922년 1월 10일 경남 진주에서 태어났다. 그는 부친의 영향으로 어릴 적부터 음악적 경험이 남달랐다고 한다. 그의 첫 습작은 가곡 <나의 사랑은>으로, 나이 17세 때였다. 이상근은 1943년 일본 관립 동경음악학교(현 국립동경예술대학)에서 공부한 뒤 돌아와 초등학교 교사가 됐다. 1951년 마산여고 음악 교사로 지낼 무렵 제1회 작곡발표회를 열었고, 전시 작곡가협회 활동을 통해 서울 음악계와 교류했다. 1952년 윤이상(1917~1995)의 추천으로 부산고교 음악교사가 되면서 부산으로 터전을 옮겼다. 한국전쟁 와중에 분실된 이상근의 칸타타 <보병과 더불어>의

악보가 2006년 발견됐고, 이 악보는 2020년 국가 등록문화재가 됐다.

1955년 문을 연 국립부산사범대학(2년제)에 재직했다. 1958년 ‘이상근 관현악의 밤’에서 선보인 <교향곡 제2번>은 완결된 4악장 체계를 갖춘 최초의 교향곡으로 평가된다. 1959년 이상근은 미국 테네시주 조지 피바디 사범대학(현 밴더빌트대학교)에서 연수를 받았는데, 미국 연수 기간 아론 코플랜드의 문하에서 작곡 인생의 전환점을 맞는다. 현대음악을 접하면서 새로운 창작의 열의를 품는 자극제가 됐던 것이다. 이상근은 1963년 부산교육대(옛 부산사범학교) 교수로 부임했다. 1974년 부산대 사범대학 음악교육과, 1985년에는 같은 대학교 예술대학 교수로 잇달아 자리를 옮겼다.

이상근은 서양음악에 한국의 정서를 입히는 데 온 힘을 기울였다. 그 스스로 “서양음악은 평균율에 근거하고 국악은 청각에 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두 음악을 융합시키는 것은 난제일 수밖에 없다.”고 했지만, 이상근은 이를 해냈다. 이상근이 1940년 진주공립고등보통학교 졸업 전에 지은 가곡 <해곡(海曲)>은 그가 “한국 사람이 아니면 못 쓰는 가곡”이란 음악관을 갖게 된 작품이다. 1970년대 이후 그의 작품에는 한국적인 음악에 대한 애착이 가득하다. 양악기와 국악기를 직접 결합한 창작곡 <조우(encounter)> 시리즈를 비롯해 오페라 <부산성 사람들>(1986), 연가곡 <아가(雅歌)Ⅱ>(1988) 등이 그 대표적인 작품들이다. 이상근이 1975년 제7회 서울음악제의 위촉에 따라 고려가요를 바탕으로 지은 혼성합창곡 <청산별곡>에는 징, 장고, 박과 같은 국악기들이 등장한다.

특히 임진왜란 당시 부산성 전투를 소재로 한 오페라

<부산성 사람들>에는 한국적 어법과 함께 ‘부산 또는 경상도스러움’이 두드러진다. 합창 부분과 레보시타티보(오페라에서 대사를 말하듯 노래하는 형식)의 대부분은 부산 또는 경상도 억양을 그대로 쓰도록 했다. 장례 장면에서는 경북 예천의 상여소리와 비슷한 리듬(느린 굿거리풍)이 흐른다. 결혼식 장면의 음악에는 시나위와 같은 화음이 구사된다. 덧배기춤의 음악에는 장구의 채편을 치는 듯한 대목도 있다. 서양음악 오페라라는 뼈대에 한국 전통의 장단과 경상도 억양의 노랫말을 가득 채웠다.

이상근의 가곡 작품 가운데 시어(詩語)가 지닌 음악적 특성을 작품으로 승화한 게 더러 있다. 그는 유치환 조항 김춘수 최계락 등 지역 문인들의 시 작품을 가사로 삼았다. 이는 그의 지역 연고성을 뚜렷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이상근이 부산에서 본격적으로 활동한 시기는 1950년대 초반부터다. 그는 1952년 부산의 이화여대 피란 교사 천막 강당에서 제2회 작곡발표회를 열었다. 이 발표회는 이상근 스스로 “한국 음악사상 최초의 개인 실내악 작품을 선보였다”고 밝혔을 만큼 큰 의미가 있다. 그가 작곡가 행보를 본격화했다는 의미다.

이러한 이상근의 음악 인생에서 구심점은 부산이었다. 그는 1958년 창립된 작곡가들의 단체인 ‘창악회’에서 활동하며 부산의 음악가를 대표해 서울을 비롯한 전국의 음악가들과 함께했다. 또 이상근은 동인지 ‘윤좌’에 몸을 담으면서 부산의 사회 인사, 예술가들과 교류하며 지역 문화예술의 뒷발을 일구었다. 이상근의 활동 무대는 부산에 그치지 않았다. 경남 마산과 대구 등 영남지역으로 보폭을 넓혔다. 그는 ‘영남악파’의 대표자이자 한국 현대음악을 이끈 주인공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이상근은 부산 음악 문화의 토대를 마련하고 음악 교육과 공연문화를 이끈 크나큰 스승이었다. 그는 1958년 작곡가들이 활동할 공간 마련을 위해 최인찬 함사순 유신 최덕해 등과 작곡가 모임인 ‘Group A’를 꾸렸다. 이상근은 1974년 부산대 사범대학 음악교육과 신설과 함께 교수로 취임한 뒤 창작계에 활기를 불어넣으려는 취지에서 제자들과 함께 ‘향사회’를 결성했다. 향사회는 창작 발표회, 신인작품 공모, 세미나 개최 등으로 대중적인 활동을 펼쳤다. 대학 연주단체의

결성 역시 주도했다. 효성여대 합창단, 부산대 사범대학 합주단, 프로 무지카(Pro Musica) 등을 들 수 있다.

1982년 5월 창단 연주회를 연 프로 무지카는 남다른 의미가 있다. 실내악 연주 활동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됐기 때문이다. 프로 무지카에는 교수진과 강사는 물론 대학 1학년 학생도 참여할 수 있었다. 이상근은 프로 무지카에 열정과 애정을 쏟았다. 그 스스로 “프로 무지카는 부산대의 음악적인 얼굴임을 자처한다. 필자(이상근)가 퇴임할 때까지 작곡에의 집념 이상으로 프로 무지카 지도에도 보람을 느끼고 있음을 고백해도 좋을 것 같다.”고 할 정도였다.

이상근의 업적에서 음악 교과서 발간도 눈에 띈다. 그는 1954년 윤이상과 함께 「초등학교 음악지도서 I - 제1·2학년용」(새로인출판사)를 펴냈다. 이상근이 1967년 영지문화사를 통해 펴낸 「중학음악 1」과 「중학음악 2」는 1978년 국정교과서로 채택, 출판되기도 했다. 당시 검인정교과서가 난립했던 사정을 미뤄볼 때 이는 대단한 성과로 주목된다. 이상근은 또 1979년 규문각을 통해 「음악: 교사용 지도서」와 「음악」 교과서를 펴냈다. 이들 음악 교과서와 교사용 지도서에는 기악과 합주를 지향한 그의 음악교육관이 그대로 반영됐다. 이는 미국 음악교육 현장에서 접한 경험이 투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상근은 문필 활동도 열심히 했다. 다음은 그가 창악회를 통해 서울에서 작곡 활동을 하던 무렵 쓴 글이다. “지방에 있다고 해서 작품 활동에 지장을 받은 적은 전혀 없습니다. 초창기에 부산 음악계가 낙후되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제는 중앙무대 못지 않게 모두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아쉬움 점이 있다면 부산 음악계에 연주만 있지 평론이 아직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부산 동인지 ‘윤좌’에 실은 비평과 평론 활동을 통해 자신의 음악관과 창작관을 드러냈다. 이 외 다양한 매체의 비평과 평론, 음악 해설 등으로 이상근은 자주 대중과 만났다.

이상근은 음악과 관련한 사회적 글쓰기, 즉 공론의 장도 많이 펼쳤다. 그가 1961년 『국제신문』(지금의 『국제신문』)의 1월 14일 자에 기고한 내용을 살펴보자. 부산에 이렇다 할 연주회장이 하나도 없던 당시 현실과 관련해서 쓴 글이다. 제목은 ‘최초의 민선시장

에게'인데, 이상근은 해당 글에서 문화회관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천 명 내외의 좌석을 가지고 알맞은 음향 설비, 그리고 오륙십 명의 연주에 지장 없을 무대, 또 꼭 필요한 연주회용의 대형 피아노만 구비된다면 문화도시 부산의 면목에 손색이 없을 것”이라는 게 주된 내용이다. 전문 공연장의 면모를 갖춘 부산시민회관은 1973년 문을 열었다. 부산시민회관은 1993년 부산문화회관의 등장 전까지 부산에서 유일한 문화 예술의 요람이었다.

이상근이 각 단체와 회사, 학교 측의 요청에 따라, 앞서 언급한 국제신문 사가(社歌)를 비롯해 여러 학교의 교가(校歌)를 쓴 것도 빼놓을 수 없다. 국립교향악단(지금의 KBS교향악단) 창립 20주년을 기념해 <축전 서곡>을, 부산대의 <사대가(師大歌)>와 <교악학부 찬가>, 부산수산대(지금의 부경대)의 <바다의 아들>을 썼다. 또 부산문화방송의 <HLKU의 노래>, 부산시 제정 <시민의 노래>와 <자유와 항구>, 부산은행 사가, PSB(지금의 KNN) 사가 등을 작곡했다. 교가도 많이 남겼는데, 금성고 낙동고 남성여고 덕문여고 동인고 부산외국어고 중앙여고 중앙고 충렬고 등이 이에 해당한다.

2022년은 이상근의 탄생 100주년이다. 대상을 '전 세계'로 넓히면 1922년에 태어난 음악가는 영화 음악으로 유명한 작곡가이자 지휘자 엘머 번스타인, 바이올린의 거장 이브리 기틀리스, 그리스 출신 작곡가 이안니스 크세나키스, 플루트의 황제로 불린 장 피에르 랑팡 등을 꼽을 수 있다. 필자는 이상근 역시 한국을

대표하는 작곡가로서 이들 세계적인 음악인과 함께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경성대 김원명 교수 역시 논문에서 “이제 이상근에 버금가는 음악인이 언제 다시 부산에 나타날지 아무도 기약할 수 없다. 그러나 부산이 이상근을 가졌다는 사실 그것만으로도 이미 행운”이라고 쓴 바 있으니...

문제는 이상근 평생의 일터이던 부산에서 그에게 쏟는 관심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부산은 이상근이 반백 년 동안 예술혼을 불태운 곳임에도 탄생 100주년을 맞은 올해 이상근에 부여된 자리는 너무나 비좁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이동순 가요평론가는 국제신문에 연재한 「이동순의 부산 가요 이야기 <34> 작곡가 백영호 음악의 고향」편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한 예술가의 생애에서 고향이 차지하는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중략) 그러므로 그 예술가의 유품과 발자취가 전시될 기념관은 반드시 작가의 고향에 설립되어야 마땅하다.” 이상근이 20세기 우리나라 음악 문화의 씨를 뿌리고 꽃을 피운 곳은 바로 부산이다. 이상근을 기리는 '기억의 공간'을 만드는 일은 그래서 필요하다. 그 공간에서 이상근의 활동 당시 신문 스크랩, 악보, 공연 팸플릿, 사진과 영상 등을 일목요연하게 접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는 능히 '문화예술의 도시' 부산을 살찌우는 일이기도 하다. 이에 관한 건설적인 논의를 기대한다.

<inmin@kookje.co.kr>



HOT PAPER

Stakeholder Capitalism

R. Edward Freeman, Kirsten Martin and Bidhan Parmar (2007),
Journal of Business Ethics, 74(4), pp. 303-314.



성현정

부산대학교 윤리경영전략센터 연구원

기업의 주인은 누구일까? 또 기업의 목적은 무엇일까? 1976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미국의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Milton Friedman)은 이 까다로운 질문에 대한 답을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에 대한 정의로 대신하였다.

“기업의 유일한 사회적 책임은 규칙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기업의 이익을 증대시키기 위해 자원을 활용하고 계획된 활동에 전념하는 것이다. 즉, 속이거나 기망하지 않고 공개적이고 자유로운 경쟁에 참여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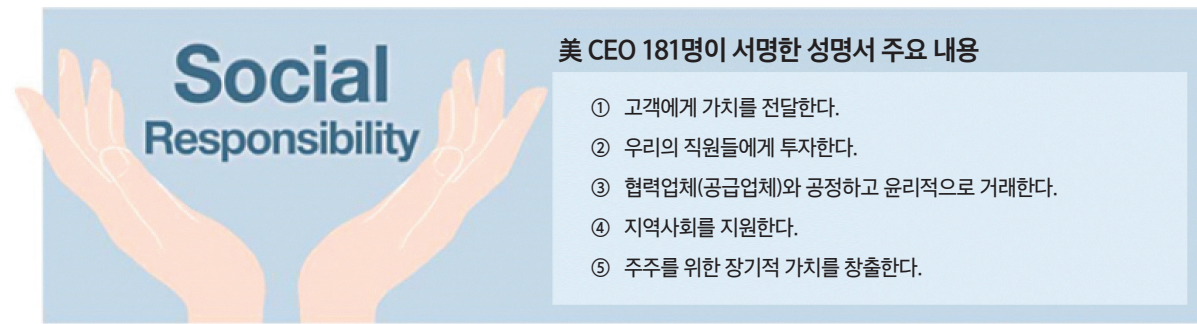
프리드먼은 1962년 출간한 본인의 저서 「자본주의와 자유(Capitalism and Freedom)」를 통해 기업의 목적은 이윤창출이며, 이를 통해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이론을 공고히 함으로써 주주 자본주의(Shareholder Capitalism)를 정착시켰다. 그에 따르면 기업은 주주를 위해 존재하고 오로지 주주만을 책임지며, 주주의 이익 극대화가 최우선이라는 것이다. 또한 기업의 사회적 양심(social conscience)은 오히려 자유 사회(free society)의 토대를 약화시키며 사회적 책임은 기업적 차원의 의무가 아닌 개인적 차원의 미션이라는 것이다. 더 나아가 주주에 의해 고용된 전문경영인이 사회적 책임이라는 명목 하에 자원을 투입하는 것은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이므로 주주-대리인 문제(principal-agent problem)까지도 발생시킬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이 패러다임은 반세기동안 우리를 지배하였고 기업의

유일한 의무는 오직 주주 가치극대화이므로 기업 활동을 통한 낙수효과(trickle-down effect)로서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을 달성하는 것만으로도 사회적 책임을 다했다고 판단하였다. 하지만 장기간 집권 하였던 프리드먼식 패러다임은 지금 서서히 무너지고 있다. 그의 가르침대로 기업이 단기적인 이윤창출에만 집중하면서 경제적 양극화와 환경파괴와 같은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2008년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시장 만능주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2011년 '월가를 점령하라(Occupy Wall Street)' 시위와 같은 반(反)기업, 반 시장정서와 포퓰리즘이 결합하면서 분수령이 된 것이다.

적극적인 변화의 시작은 2019년 8월 미국의 200대 대기업 모임인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Business Round Table, BRT)에서 Apple의 팀 쿡, Amazon의 제프 베이조스, JP Morgan의 제이미 다이먼 등 세계적 기업의 CEO들이 기업의 목적에서 '주주가치의 극대화'라는 문구를 삭제하겠다고 밝히면서이다. 「기업 목표에 관한 성명(Statement on the Purpose of a Corporation)」을 통해 아래의 <그림>과 같이 새로운 기업의 목적 5개를 제시하면서 기존의 목적인 주주(Shareholders)의 이익 극대화에서 고객, 직원, 지역사회 등 모든 이해당사자(Stakeholder)의 번영 극대화로 바꾸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이때 언론에서는 주주 자본주의의 종주국인 미국도 드디어 유럽과 같이 '이해관계자 자본주의(Stakeholder Capitalism)'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고 떠들썩하게 보도하였다.

<그림> 2019년 9월 BRT에서 밝힌 '기업 활동의 목적'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는 기업이 주주의 이익뿐만 아니라 고객, 근로자, 거래기업, 지역사회 등 모든 이해관계자를 존중하는 경영을 의미한다. 최근 ESG(환경·사회·거버넌스)가 떠오르는 경영전략이 되면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는 더욱 힘을 실어가고 있는데, 요즘 자주 언급되고 있으나 실제로는 1930년대부터 '주주 자본주의'의 대립적 개념으로 많이 활용되었다. 특히 1979년 CSR분야의 유명한 교수, Archie B. Carroll은 'CSR 피라미드 모델'을 정리한

논문에서도 이해관계자의 중요성을 언급하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기업은 이토록 중요한 주주와 근로자 및 지역사회와 같은 이해관계자를 동일선 상에 놓는 기업비적 전환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데, 이해관계자는 이에 걸 맞는 어떠한 자격과 역할을 갖추어야 할까? 기업에게만 의무가 있고 이해관계자는 권리만 있다면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는 또 다른 불평등의 시작이지 않을까?

<표> 주주 자본주의와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비교

	주주 자본주의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기업 이념	주주 주권주의 ("주주들에게만 책임진다")	기업 공동체주의 ("사회 전체에 책임진다")
경영 목표	주주이익의 극대화	이해관계자의 이익극대화
기업 성과 측정 방법	기업의 시장가치 (주식가격)	기업의 시장가치, 고용관계, 공급자와 구매자와의 거래관계 등
규율 수단	이사회에 경영감시, 시장에 의한 규율	거래은행의 경영 감시 및 통제, 조직에 의한 통제
해당 국가	미국, 영국 등 영미계 국가	독일, 일본 등 대륙계 국가

이에 대한 대답으로 2007년 에드워드 프리먼(Edward Freeman) 교수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라는 이름의 논문을 발표하면서 성공적으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가 형성되는 데 필요한 6대 필수원칙(principle)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이해관계자 협력의 원칙(Principle of

Stakeholder Cooperation)'으로 우리는 모두 자신의 이익을 최대화하려는 이기적인 존재이므로 스스로의 욕구와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이해관계자의 자발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둘째, '이해관계자 참여의 원칙(Principle of Stakeholder Engagement)'은 기업의 가치 창출로

영향을 받거나 영향을 미치는 고객, 공급자, 지역주민, 근로자 등 다양한 비즈니스의 영역에 속한 이해관계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하였다.

셋째, '이해관계자 책임의 원칙(Principle of Stakeholder Responsibility)'으로 이해관계자는 본인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하며 다른 이가 이로 인해 피해를 받았다면 적극적으로 보상하거나 협상하여 새로운 합의를 끌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 '복잡성의 원칙(Principle of Complexity)'은 사람은 각기 다른 가치와 관점을 가진 복잡한 심리적 구조를 가진 존재로서 사회적인 입장과 맥락에 의해 의사결정을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섯째, '지속적 창출의 원칙(Principle of Continuous Creation)'이란 기업은 특수목적기관으로서 하나의 가치 창출의 원천이므로 이해관계자와 협력하면서 지속적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경쟁의 원칙(Principle of Emergent Competition)'은 이해관계자가 다양한 선택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자유로운 사회에서 경쟁이 발생해야 하며 이러한 경쟁은 제로섬(zero-sum) 게임이 아닌 윈-윈(win-win) 관계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다시 말해 '이해관계자 자본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 '이해관계자'로서 우리는 다양한 범주의 다른 사람들과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하며 우리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기업'은 복잡한 심리구조를 가진 이해관계자의 속성을 이해하고 지속적인 가치 창출을 위해 협력하며 경쟁을 통해 그들에게 선택받을 수 있도록 자유로운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이해관계자이다. 기업의 주주이자 근로자, 고객, 지역주민 등 각기 다른 얼굴로 다양한 사람들과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교환하며 유지하기 위해 협력한다. 이 과정에서 요구되는 기업과 이해관계자의 역할을 규정한 앞선 에드워드 프리먼 교수의 원칙들은 사실 아주 새롭고 혁신적인 내용은 아니다. 그저 단순히 이해가 얹혀있는 거래관계에서 신뢰하고 협력할 수 있는 거래자의 자격조건을 떠올려 보자. 그리고 반대로 내가 그런 자격조건을 만족하는 이해관계자인지 고민해보자. 구약성서의 가르침 중 하나인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결국 이해관계자의 자격에도 적용되는 만고불변의 황금률이기 때문이다.

<hjsung9@pusan.ac.kr>



NEWS- 동남권지역혁신 소식



부산대, 중기부 「메이커 스페이스 전문랩」 주관기관 선정



- 최대 5년간 국비 45억 원, 시비 5.4억 원 투입...제조창업 지원, 메이커 문화 확산 나서
- 부산대 V-Space에 규모·인력 확충, 전문장비 추가해 부산형 메이커 산업 육성 '고도화'

부산대학교(총장 차정인)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고 창업진흥원이 전담하는 「2022년도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운영사업」 '전문랩' 주관기관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운영사업」(사업단장 안석영·기계공학부 교수)은 혁신적인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메이커 스페이스*를 전국적으로 확충해 메이커 문화를 확산하고 제조창업 저변을 확대하고자 중소벤처기업부가 2018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부산대는 최대 5년간 국비 45억 원, 시비 5.4억 원을 지원받아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창업기업 발굴, 양성 및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협력기관으로 부산광역시도 참여해 부산형 메이커 산업 육성을 위한 제조창업 확산에 함께 나선다.

부산대는 2015년부터 메이커 스페이스인 'V-Space'를 교내에 구축해 부산형 메이커 교육,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의 시제품 제작 지원, 창업지원실 등을 운영해 왔다.

이번에 메이커 스페이스 전문랩 사업에 선정되면서 기존 V-Space 규모 1,496㎡에 추가로 298㎡를 확충해 제품 판매 및 전시 공간을 확보하고, 인력 증원을 통해 야간 및 주말 개장이 가능하도록 운영시스템을 보강할 계획이다. 전문장비 등을 추가로 구비해 일반인 및 기술혁신형 창업 지원 또한 고도화한다.

이를 통해 시제품 제작 지원 차원을 넘어 교내 HIMEC(하이브리드 제조혁신센터), PNU스마트팩토리(부속 공장) 등과 연계해 메이커 교육의 선진화, 스타트업의 초도생산 지원 및 기계, 자동차 ICT 부품 양산 지원의 역량을 확보해 부산지역 HW(하드웨어) 창업, 교육 및 제조 지원의 전주기 인프라를 구축하게 됐다.

또한 부산대 산학협력단이 운영 중인 창업선도대학, 중소기업창업보육센터, 이노비즈센터,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 공유오피스 AVEC, 창업펀드 등의 창업지원시설과 함께 전문 메이커 창업을 선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부산대 V-Space는 60명 이상의 기계, 자동차 ICT 전문가 집단이 로봇·스마트제조·모빌리티·에너지·AI 등의 분야에서 부산 지역 스타트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기술지원을 담당한다.

일반인의 경우, 야간 및 주말에도 방문 가능하며, 주로 저녁시간에 개설되는 다양한 메이커 관련 강좌들을 수강하고 원하는 것들을 무엇이든지 직접 전문장비를 활용해 만들어 볼 수 있다. 창업 등에 관한 자문 및 기술지원도 받아 시제품 및 초도물량을 생산해 직접 판매할 수 있는, 아이디어에서 판매까지 모두 경험할 수 있는 플랫폼이 구축되는 것이다.

부산대 사업단장을 맡은 안석영(기계공학부) 교수는 "우리 대학은 V-Space 개소 초기부터 메이커 운동 저변 확대를 위해 일반인을 대상으로 모든 시설과 장비를 무료로 개방·운영해 왔다. 앞으로도 계속 같은 방식으로 운영할 것"이라며 "대학을 중심으로 지역 창업 관련 인프라들이 모두 집적화된 형태로, 부산대 V-Space가 4차 산업혁명 진입의 문턱에서 침체돼 있는 부산지역의 제조창업 생태계 도약에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출처 : 교수신문(<http://www.kyosu.net>)

2022-04-13



NEWS- 동남권지역혁신 소식



부산대, 교육기부 다시 활성화 코로나 벗어나기 선도



「교·사대생 튜터링」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 주관대학 선정 등

- 2022년 교육부-한국장학재단「교사대생 등 대학생 튜터링」 프로그램 등 선정
- 교육부-부산광역시교육청-한국장학재단 등과 함께 나서 학교생활 회복 지원
- 교육소외계층 포함 유아·청소년 등 대상 20여 프로그램 2,000여 명 활동 추진

새 봄을 맞아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개학'과 비대면 수업 등으로 발생한 지역 초·중·고 학생들의 학습 결손과 심리·정서적 회복을 위한 부산대학교의 각종 교육기부 사업이 올해부터 다시 힘차게 추진된다. 2020년 '대한민국 교육기부 대상' 5회 수상과 교육기부 '명예의 전당'에 빛나는 부산대는 본격적인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기존의 프로그램 계속 추진 외에도, 올해 초중고 학생들의 학습을 돕는 신규 교육기부 프로그램을 새롭게 시작하거나, 코로나로 중단됐던 해외봉사단 활동 재개를 준비하는 등 활기를 띠고 있다.

부산대학교(총장 차정인)는 지난달인 3월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 주관하는 2022년「교·사대생 등 대학생 튜터링」(14개 대학 참여),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8개 대학 참여) 등 교육기부 프로그램의 주관대학으로 동시에 선정되어 부산지역 초·중·고 학생들의 교육 회복과 정상화를 위한 선도적인 역할을 맡게 됐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부산대는 이번에 선정된 「교·사대생 등 대학생 튜터링」 프로그램을 지난해 운영했던 「금정지역, 동래·연제지역, 작은도서관 멘토링」 프로그램과 연결·확대한 「부산지역 대학생 튜터링」 교육기부 프로그램을 신규로 추진,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제대로 된 학교생활을 보낼 수 없었던 초·중·고 학생들의 학습지도와 정서적 안정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이와 함께, 부산대는 기장군청이 함께 진행해오던 「기장지역(거점중학교육성사업, 희망꿈나무) 대학생 멘토링」 프로그램, 부산광역시교육청과 협력하는 다문화·탈북학생을 위한 「다담다 멘토링」, 동래교육지원청과 함께 하는 「또박또박한글교실」, 「동래기초학력지원센터 대학생 멘토링」 등 교육기부 프로그램도 이달부터 본격 진행한다. 이 같은 교육기부 프로그램들은 올해 대학생 멘토 1,600여 명이 참여해 2,000여 명의 지역 초·중·고생들의

「학습지도」와 정서적 지지를 통한 교육 회복을 목적으로 진행할 계획으로, 이는 지난해 12개 멘토링 프로그램에 대학생 멘토 1,304명과 초·중·고생 멘티 1,660명이 참여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증가한 수치다. 부산대는 이와 같은 「학습지도」 프로그램에 머물지 않고, 코로나19로 단절되었던 지역 초·중·고 학생들의 꿈과 미래를 키우기 위한 다양하고 구체적인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교육기부 사업도 함께 활성화 한다.

이는 대학의 인적·물적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 미술이나 과학, 문화체험 등 다양한 전공과 관심분야에 대한 체험 제공으로 학생들이 경험을 통해 자신의 미래를 구체화 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3년 만에 다시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됐다. 우선, 국립대학육성사업의 재원을 활용하여 미래과학자를 꿈꾸는 우수 과학 초·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생 과학, 물리, 화학과 교수와 연구실이 직접 연계 참여하는 「미래과학자를 위한 꿈의 과학 클래스(가칭)」을 새롭게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학생들이 각 가정에서는 진행하기 어려운 다양한 야외활동과 문화체험을 대학생들과 함께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P&U 문화가 온 DAY」 프로그램도 추진한다. 다문화 중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전공과 관심사에 대해 대학의 전공자를 배정하여 경험하게 해 학생들의 꿈과 희망을 지원하는 「다꿈 멘토링」도 이달부터 시작하며, 국립대학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예술·체육 전공학생들의 전공 캠프 프로그램인 「너의 재능이 보여」 프로그램도 확대 추진한다.

부산·울산·경남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기와 방학 기간에 걸쳐 진행하는 드론·코딩·3D프린터·영상 편집 등 4차산업혁명 관련 전공이나 교구를 이용한 만들기 중심의 체험학습을 진행하는 「지역소외계층을 위한 3-DAYS」 프로그램도 본격적으로 진행한다. 한편, 부산대는 코로나 발생 직후인 지난 2020년 2월 이후 중단되었던 해외봉사단 파견 프로그램 재개도 적극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 이를 위해 이미 태국 현지에서 대학교 및 재외공관과 파견 협의가 순차적으로 진행 중에 있는 상태이다.

또한, 대학생들과 교직원들의 재능을 현장에서 직접 펼치게 되는 부산대 「벽화봉사단」과 「효원시설봉사단」도 2년 만에 다시 재개해 지역을 아름답게 꾸미거나 시설 개·보수 작업을 진행하게 된다.

부산대는 올해 이 같은 본격적인 대면 교육기부 프로그램 재개를 앞두고 코로나19 방역과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한층 더 높은 수준의 교육기부를 제공하기 위해 철저한 사전 준비와 연수를 진행하며, 현장 관리도 세밀하게 추진하고 있다. 교육기부에 참여하는 대학생들을 서류전형과 면접전형을 거쳐 선발하고, 멘토스쿨에 등록하여 멘토링의 이해, 다문화의 이해, 의사소통과 훈육지도법, 우수멘토가 알려주는 실전 멘토링 등 8개 과목을 이수해야 자격을 부여 하는 등 탄탄한 소양교육을 실시한다.

특히, 여전히 심각한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한 생활 속 거리두기 등 「시민 행동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교육하여 참여 학교나 학생들이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대비하고 있다. 김윤찬 부산대 학생처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2년간 지역의 소외계층 학생들뿐만 아니라 적지 않은 학생들이 학습부진과 정서적 결핍을 겪고 있어, 국가 거점 국립대학으로서 초·중·고 학생들의 교육과 일상회복을 위해 작은 노력을 보태고자 한다”며 “이제 곧 조만간 다가올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우리 대학이 먼저 교육기부 프로그램 활성화 등을 통해 침체된 우리 지역과 사회에 밝고 힘찬 기운을 불어넣고 따뜻한 사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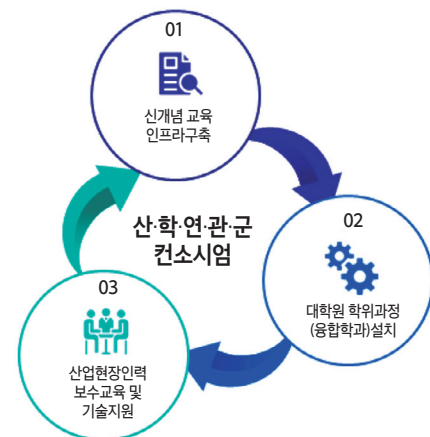
NEWS- 동남권지역혁신 소식



부산대, '무인이동체 인재양성 지역거점대학' 선정



'2022 드론쇼 코리아'가 개막한 지난 2월 24일 부산 벡스코 전시장을 찾은 관람객들이 도심항공 모빌리티(UAM) 기술을 둘러보고 있다. 부산일보DB



1. 신개념 설계 교육 인프라 구축

- 비전공자도 한정된 시간 안에 임무기반 시스템 최적 설계가 가능한 설계 프로그램 제공 필요
- 학위과정/보수교육/중소기업 연구 개발 지원
- 육해공 융복합 협업 및 시너지 창출

2. 대학원 학위과정(융합학과) 설치

- 육·해·공 무인이동체간의 원활한 융복합 연구인력 양성 및 활용/요소기술 간의 복합임무를 위한 교육 제공
- 국제경쟁력을 가지는 설계 능력 함양을 위한 임무기반형 실증기/부품 개발 교육 프로그램 제공

3. 산업현장인력 보수교육 및 기술지원

- 특정 요소기술에 집중된 현재 중소기업의 통합설계 능력 함양을 위한 실무형 설계 교육 및 신개념 교육 인프라 기반 교육 제공
- 산업체, 군, 경찰, 공공기관 등 다양한 수요 계층의 수요 기반 실질적인 교육 프로그램 제공



'육·해·공 무인이동체 혁신인재양성 사업(2022~2028년)' 목표. 과기정통부 제공

- 과기정통부, 무인이동체 인재양성 컨소시엄 구성...2028년까지 300억 원 투입
- 사업 주관대학 서울대, 지역거점대학 부산대·충남대 선정

부산대학교가 정부의 '육·해·공 무인이동체 혁신인재양성 사업(2022~2028년)' 지역거점대학으로 선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4일 '육·해·공 무인이동체 혁신인재양성 사업'(2022~2028년, 총사업비 300억 원) 선정평가 결과, 주관대학으로 서울대학교, 지역거점대학으로 부산대학교와 충남대학교, 참여대학으로 인하대학교 등 10개 대학과 한국무인이동체연구조합이 참여하는 컨소시엄이 최종 선정되어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UAM(도심항공모빌리티) 등 무인이동체 산업의 성장에 따른 연구인력 수요의 급격한 증가에 대비해 석·박사 전문인력과 산업 현장인력을 양성하고, 관련 기업의 연구개발 역량을 고도화하기 위한 사업이 본격화 된다.

무인이동체란 외부 환경을 인식하고 상황을 판단해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이동체로, 드론·무인기(공중), 무인 지상차량(육상), 무인선박·잠수정(해양) 등을 통합하는 개념이다.

이번 사업은 드론기술 교육에 치우친 기존 인력양성 사업과 달리 육·해·공 무인 이동체 시스템을 설계·제작·실증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에 초점을 맞췄다. 주관대학인 서울대는 사업을 총괄하며, 신개념 교육 인프라를 개발·구축하고 석·박사 교육 과정을 구성·운영한다. 지역 거점대학으로 선정된 부산대와 충남대는 서울대와 함께 무인이동체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남부지역과 중부지역을 각각 대표해 무인이동체 석·박사 교육 과정을 설치·운영한다. 참여대학은 주관·거점대학과 연계해 석·박사를 대상으로 인증교육 과정을 운영한다.

서울대 컨소시엄은 앞으로 '임무 기반형 실증기 개발교육'을 위해 신개념 교육 인프라를 개발·구축하고, 전문 고등 교육 과정을 구축·운영하는 한편, 산업현장인력 보수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다.

교육과정으로는 주관대학 및 2개의 거점대학에 학위과정을 설치·운영하고, 참여대학을 통해 인증과정을 운영한다. 특히 박사과정을 대상으로 무인이동체를 설계·개발·제작하고 챌린지 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임무기반형 실증기 개발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과기정통부는 "육해공 무인이동체 개발을 위한 교육인프라 구축과 전문인력 양성은 관련 산업에 전문 인력을 공급하고 무인이동체 스타트업·중소기업이 세계적인 전문 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출처 : 부산일보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2041417330031321>

2022-4-14



부산대 '새벽별도서관' 새 단장..복합문화공간 '스마트 러닝커먼스' 조성



새벽별도서관은 교내 6개 도서관 중 열람실이 가장 많고 기숙사 등과 인접해 학생들이 공부를 위해 많이 찾는 곳이다. 부산대는 이곳 새벽별도서관 1층에 주 이용자인 학생들이 학습하고 연구하며 휴식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 '스마트 러닝커먼스'를 조성했다. 또 대학원생의 교육 몰입도를 높이기 위한 'In(人)novation Park'도 마련했으며, 도서관 둘레길과 야외마당을 꾸며 주변 환경 또한 개선했다.

특히 이번 개선 사업에서 부산대는 학생위원 6명을 추천받아 도서관 리모델링을 위한 구매위원회를 구성, 비품 구매 등에 이용자인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했다.

DSLR 카메라, 탐조명, 크로마키 스크린 등이 구비된 매체 제작실과 듀얼 모니터를 활용할 수 있는 매체 편집실도 신규 조성해 교내 구성원들의 다양한 콘텐츠 제작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존의 열람식 구조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분위기의 개방형 열람 공간을 구축해 휴식과 학습·강연 등 다양하고 유연한 활용이 가능해졌다. 좌석 배치 형태도 창가 전망형 열람석, 편안한 소파 좌석 등 북카페형 공간 배치를 통해 독서 및 협업 분위기도 자연스럽게 형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새 단장이 이뤄진 것은 대학의 지속적인 성장에 따라 연구·학습 공간의 환경 개선과 공간 확충의 필요성이 커진 한편, 4차 산업혁명, 코로나19 영향 등 최신 정보기술의 변화 또한 디지털 세대인 이용자들에게 적합한 스마트 기반의 학습공유공간 수요를 높여 왔기 때문이다.

28일 열린 개관 행사에서 차정인 부산대 총장은 "오랜 세월 책들이 잠들어 있던 공간이 앞으로는 학생들이 자유롭게 공부하고 토론하며 다양한 배움을 나누는 새로운 공간이 될 것"이라며 "책들이 자리를 내준 이곳에서 우리 부산대 구성원들의 학문과 세상에 관한 아름답고도 무궁무진한 대화가 오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부산대 총학생회장 권한대행인 정세윤(무역학부 18학번) 학생이 학생들의 감사하는 마음을 모아 차 총장에게 도서관 새 단장에 대한 감사패를 전달하는 깜짝 이벤트를 열어 감동의 순간이 연출되기도 했다.

한편, 부산대는 최근 캠퍼스 건물 곳곳에 시간·장소의 구애 없이 자유롭게 학습할 수 있는 열린학습공간·틈새 학습공간을 구축하는 등 다양한 혁신과 변화를 꾀하면서 학생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출처: 부산일보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2042910253132205>

2022-4-29



부산대학교(총장 차정인)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학생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새벽별도서관'을 새로운 모습으로 단장했다.

부산대 도서관(관장 설문원·문헌정보학과교수)은 학생들의 최근 도서관 이용 패턴을 반영해 공간을 혁신한 새로운 도서관 모델 개선 사업을 추진, 새벽별도서관 1층 보존서고에 수장돼 온 27만 권의 책을 밀양캠퍼스 나노 생명과학도서관으로 이관하면서 이곳을 이용자 중심 공간으로 탈바꿈시켰다.

NEWS- 동남권지역혁신 소식



[창업중심대학/부산대학교] 최경민 부산대학교 창업지원단장, “사업비 총 400억원 확보, 2026년까지 5년 동안 동남권 청년창업 혁신 거점 역할 수행할 것”

- 중기부 예비·초기 사업, 2년 연속 최우수 기관 뽑혀
- 3년간 372여개 기업 육성, 매출 1176억원 성과
- 한해 3000명 창업 강좌 수강, 25개 창업동아리 지원

[한경잡앤조이=이진호 기자] 2017년 설립된 부산대학교 창업지원단은 ‘동남권發 글로벌 유니콘 기업 창출의 전초기지 구축’을 비전으로 운영되고 있다. 부산대 창업지원단은 지역의 우수 창업자를 위한 사업화 지원사업부터 창업 교육, 창업 활동 프로그램 운영, 창업기업 보육 공간 제공, 투자 네트워크 구축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부산대 창업지원단은 올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원하는 창업중심대학 동남권 주관기관에 선정됐다. 중기부는 창업 열기를 확산하고 창업 초기 단계에 집중된 청년창업 생태계를 전 주기로 확장하기 위해 전국 6개 대학을 창업중심대학으로 선정했다. 창업중심대학에는 동남권 부산대를 포함해 강원권 강원대, 수도권 한양대, 충청권 호서대, 호남권 전북대, 대경권 대구대 등이 뽑혔다.

동남권 거점대학으로 선정된 부산대는 올해부터 2026년까지 5년 동안 동남권 청년창업 혁신 거점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최경민 부산대 창업지원단장은 “부산대는 대학의 기술개발 노하우와 인적·물적 인프라를 활용해 동남권 산학연 창업 클러스터를 구성했다”며 “동남권 스타트업의 전초기지 구축을 통해 동남권 창업 메가시티의 거점으로 발돋움하는 것이 최종 목표”라고 말했다. 지난 4월 15일 부산시 금정구 부산대에서 최 단장을 만났다.



창업지원단의 지난해 성과를 돌아본다면

“부산대 창업지원단은 2020년 중기부 예비·초기창업패키지 사업 주관기관으로 선정됐으며 지난해까지 2년 연속 최우수 기관에 뽑혔다. 스타트업에 입주 공간과 사업화를 지원하는 창업보육센터 또한 중기부 경영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S’등급을 획득했다. 이 같은 결과는 우수한 창업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한 담당자의 노력이 반영된 것으로 생각한다. 장기간에 걸친 코로나19 상황에도 부산대는 창업생태계 변화에 빠르게 적응해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한해 육성하는 기업 수와 실적이 궁금하다

“부산대 창업지원단이 최근 3년간 발굴한 예비·초기 창업기업은 372곳이다. 이들 기업은 매출 1176억원, 신규고용 1275명, 투자유치 484억원 등의 성과를 냈다. 창업보육센터를 통해서도 한해 40여개 창업기업에 사업장을 제공하고 있다. 부산대 창업지원단이 육성한 창업자들은 다양한 창업사업에 선정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2020년 학생 동아리로 활동한 학생창업 기업인 A기업은 2021년 예비창업패키지 사업에 선정됐으며 이를 발판으로 틱스(TIPS) 운영사의 시드 투자유치를 받기도 했다.”

다양한 정부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어떤 것을 진행하고 있나

“부산대 창업지원단은 중기부 예비·초기창업패키지 사업을 비롯해 창업보육센터와 부산이노비즈센터, 기술지주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부산대 창업지원단은 창업교육부터 보육, 연구개발(R&D), 사업화 단계까지 창업자와 창업기업을 위한 전(全)주기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부산대 창업지원단은 최근 3년간 총 14개 사업을 운영했다. 총사업비만 140억원에 이른다. 이를 통해 스타트업 372개사를 지원했다. 올해에는 창업중심대학에 선정돼 총 5년간 사업비 400억원을 확보했다. 이를 활용해 지역 청년 창업을 확산하고 우수한 역량을 보유한 창업자의 사업화와 스케일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부산대가 창업중심대학에 선정될 수 있던 비결은

“부산대는 우수한 청년 창업기업 발굴부터 지원까지 창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부산대 창업지원단은 창업지원을 위한 전문 인력을 바탕으로 창업보육 공간과 기업지원 인프라, 투자재원 확보, 다양한 전문가 네트워크 등을 갖추고 있다. 다양한 지원사업을 운영한 노하우와 역량을 바탕으로 지역 내 창업 관계 기관들과 유기적으로 협업을 하는 것도 강점으로 꼽힌다. 이런 강점을 바탕으로 청년 창업자에게 최적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것이 창업중심대학에 선정된 비결인 것 같다.”

부산대 창업지원단이 강점으로 가지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부산대 창업지원단의 최대 강점은 전문역량을 갖춘 전담 인력을 구성하고 있다는 점이다. 부산대 창업지원단 구성원 전원이 창업 관련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3년 이상의 창업 업무 경력을 가지고 있다. 이들이 창업자의 다양한 애로사항에 직·간접적 도움을 주고 있다.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와 협업을 통해 맞춤형 컨설팅도 지원한다.”

지원 스타트업 중에 성공 사례가 있나

“㈜젠라이프와 ㈜에이아이인사이트를 꼽을 수 있다. 젠라이프는 2020년 12월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기업이다. 슈퍼노구조체 플랫폼을 적용한 안질환 조기 진단용 의료기기를 개발한 스타트업으로 2020년 예비창업패키지,

2021년 초기창업패키지 사업에 선정됐다. 현재 벤처 기업인증과 연구소 기업 인증을 완료했다. 울산시와 울산 기술강소기업 허브화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며 빠른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에이아이인사이트는 2019년 4월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인공지능(AI) 기반 고성능 안저카메라를 개발하는 스타트업이다. 부산대학교기술지주와 부산대 병원과 활발하게 협업을 진행하며 성장한 기업이다. 광학 정밀 의료기기 및 AI 조기 스크리닝 원천기술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포스코 기술투자’로부터 10억원 규모의 시드 투자를 유치했다. ‘2021 대한민국 국가사회산업공헌대상’에서 메디칼 인공지능 부문 대상을 받았다.”

스타트업들의 판로개척은 어떻게 지원하나

“최근 들어 스타트업의 판로개척 트렌드는 유통망을 확보하는 사업 형태보다 공격적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형태가 주도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플랫폼 시장’으로 스타트업의 운영 형태가 이동함에 따라 부산대 창업지원단도 이전의 판로개척보다는 스타트업의 니즈를 반영한 마케팅 전략 지원에 목표를 두고 있다.”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창업 교육은 어떻게 이뤄지나

“부산대 창업지원단은 우수한 역량을 보유한 학생들이 팀을 꾸리고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창업동아리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25개 창업동아리를 선발해 지원했다. 창업동아리 출신 창업자들이 예비창업패키지 등의 정부 지원 사업에 선정되며 성과도 내고 있다. 부산대 창업지원단은 재학생을 대상으로 매년 정규 교과목을 개설해 직접 운영하고 있다. 2021년 25개 교과목을 2200여명이 이수했다. 학과 등에서 개설하는 창업교과를 포함하면 한해 3000명에 가까운 학생이 창업 교육을 수강한다. 창업캠프나 창업경진대회, 서포터즈 지원 등의 비교과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창업 분위기를 활성화하고 있다.”

지역 사회와 연계해 진행하는 사업은

“부산대 창업지원단은 부산지식재산센터와 함께 PNU-IP 패키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IP 디딤돌 프로그램과 연계해 운영되는 사업으로 부산지역 소재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특허 출원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특허 출원 비용 일체를 지원하며 네트워킹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프로그램을 통해 30여명이 교육받았으며 이 중 18여 건이 특허 출원을 마쳤다.”

올 한해 목표가 있다면

“창업중심대학 사업을 잘 운영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이다. 동남권을 대표하는 창업중심대학으로 선정된 만큼 동남권 청년창업 활성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 시대 변화에 따른 창업 영역이 확대되고 새로운 분야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고 있다. 변화에 적응하고 지속할 수 있는 스타트업이 창출될 수 있는 혁신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 부산대 창업지원단이 창업중심대학으로서 성공적인 모델을 확보할 계획이다. 협력 대학과의 교류와 인프라 연계를 통해 성공 모델을 지역으로 확산하는 전초기지 역할도 수행하고 싶다.”

출처 : 매거진환경 <https://magazine.hankyung.com/job-joy/article/202204275279d>

2022-04-27

NEWS- 윤리경영전략센터 소식



2022년 KIEP-GPAS사업 특별초청강연회(지역연구 포럼) 개최

부산대학교 윤리경영전략센터에서는 장현식 교수(이화여대 교수)를 초청하여, ‘동남아시아 지역연구를 위한 국제개발협력분야 사례 - 난민촌, 국제개발협력과 ODA’라는 주자로 대면 강연을 진행하였다



또한 김애진 교수(동서대 교수)와 구보경 연구원(부산외대 연구원)을 강사로 초청하여 대학원생 논문 작성 역량 강화를 주제로 대면 초청강연을 진행하였다.

이번 강의는 KIEP-GPAS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으며 COVID-19의 장기화 속에서도 참석자들의 많은 호응을 이끌어 내었다.



NEWS- 윤리경영전략센터 소식

부산대 윤리경영전략센터, 2022학년도 부산지속가능발전대학 제5기 수강생 모집

RENovation 부산지속가능발전대학

2022학년도 부산지속가능발전대학 제5기 수강생모집

부산대학교 국립대학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지속가능한 부산 구현을 위해 「부산지속가능발전대학 제5기」 수강생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주 제 : ESGs와 지속가능발전
- 교육기간 : 2022.07.05 ~ 2020.07.28(8강, 총16시간)
- 교육장소 : 부산대학교 12공학관 202호
- 모집기간 : 2022.06.20 ~ 2020.07.04
- 모집대상 : 지자체 및 산하기관 임직원, 산업체 임직원, 대학(원)생, NGO, 시민
- 모집인원 : 30명 내외
- 제출서류 : 이력서 작성하여 sbe-center@pusan.ac.kr로 제출
- 특 전 : 부산대학교총장 명의의 수료증서 수여
부산대학교 학부생은 비교과 마일리지 제공
- 강의일정

구분	일자	시간	강의주제
1강	7월 05일(화)	18:30~20:30	개강식 / 기업들의 생존전략(ESGs)
2강	7월 07일(목)	18:30~20:30	친환경 기업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3강	7월 12일(화)	18:30~20:30	ESG 기업이 만들어가는 새로운 기업경영
4강	7월 14일(목)	18:30~20:30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사회적 기업의 역할
5강	7월 19일(화)	18:30~20:30	친환경 에너지 기업의 사회적 공헌
6강	7월 21일(목)	18:30~20:30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환경보호
7강	7월 26일(화)	18:30~20:30	올바른 기업문화와 건강한 삶
8강	7월 28일(목)	18:30~20:30	지속가능 발전과 기업의 미래 / 수료식

* 위드 코로나19를 고려하여 수업방식(대면 혹은 비대면) 및 강의주제와 일자는 추후 변경 가능
* 추후 지속가능발전도시 현장 견학 진행 예정

윤리경영전략센터 행정실 : 051) 510-1084

주최 부산대학교 부산광역시 주관 부산대학교 윤리경영전략센터 부산대학교 지역혁신협력팀 부산지속가능발전협의회

NEWS- 윤리경영전략센터 소식

2022년 「동남권지역혁신 INSIGHT」 통권 제16호(9월호) 원고 모집

부산대학교에서는
「동남권지역혁신 INSIGHT」통권 제16호(9월호) 발간을 위한 원고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 공모명 | 「동남권지역혁신 INSIGHT」 통권 제16호(9월호) 원고 모집
- ❖ 모집분야 | COLUMN: 지역혁신·발전을 위한 산, 학, 관, 민 파트너십
OPINION: 지역혁신·혁신경영·지역협력 등 동남권 지역 혁신을 위한 파트너십의 추진전략·방법 등
ISSUE DIAGNOSIS: 동남권 관문공향, 식수문제 등 지역 현안
HOT PAPER: 파트너십 등 혁신경영 관련 해외 HOT PAPER 소개
CASE STUDY: 윤리경영·CSV·지역혁신 관련 동남권 기업 사례
NEWS: 동남권지역혁신 관련 주요 소식으로 지역에 홍보가 필요한 행사 계획 및 성과 홍보
- ❖ 원고분량 | COLUMN / OPINION / ISSUE DIAGNOSIS: A4용지 2매 내외
HOT PAPER: 제한없음
CASE STUDY / NEWS: 제한없음(사진 및 이미지 등 필요내용 첨부가능)
- ❖ 제출방법 | 윤리경영전략센터(sbe-center@pusan.ac.kr)로 사진/이미지 자료와 함께 이메일로 제출
※ 이메일 발송시 연락가능한 휴대전화번호 기입요청
- ❖ 원고마감일 | 2022. 09. 30.(금)까지 (이후에는 아래 문의처로 문의)
- ❖ 참여대상 | 부산대학교 및 동남권지역대학 교직원·대학(원)생
동남권지역 관, 산, 연, NGO 등의 기관 임직원
- ❖ 활용계획 | 선정된 원고에 대해 소정의 원고료 제공
보내주신 원고는 편집·제작과정을 거쳐 「동남권지역혁신INSIGHT」 통권 제16호(9월호)에 게재됩니다.
- ❖ 문의사항 | 부산대학교 윤리경영전략센터 행정실 (☎ 051-510-1084)